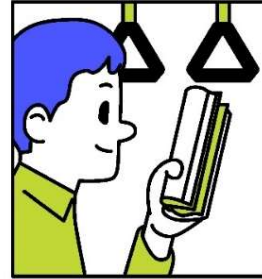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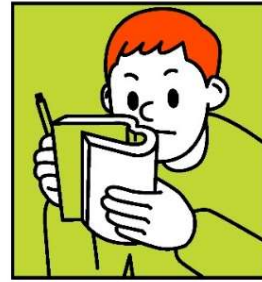


2023학년도 여름방학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날대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대 愛 서 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2023학년도 여름방학

전대愛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수 상 작 품 집

2023학년도 여름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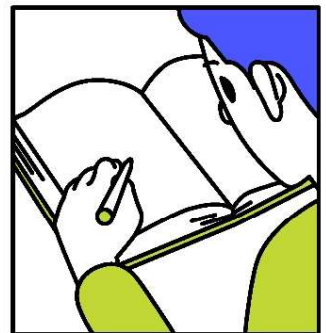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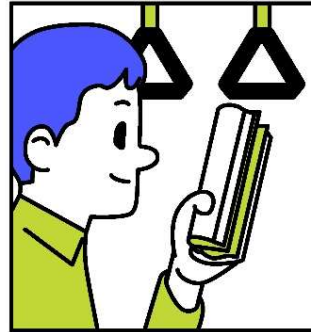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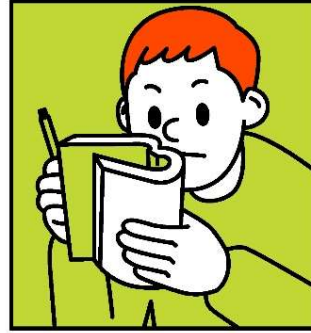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전대 愛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2023.

7. 3. 월 - 8. 18. 금



공모대상

본교 재학, 휴학 중인 대학생 누구나

공모내용

전대愛서52 중 1권을 읽고 국문으로 작성한 독서 에세이 1편

접수방법

성장마루(grow.jnu.ac.kr)에서 온라인 접수

· 분량: A4 2매 내외, 성장마루 공지사항 서식 참고

심사기준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주제	· 글쓴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서술 · 도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발견	50점
구성	·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 · 각 단락 간의 유기성 및 논리적 일관성, 분량의 적절성	30점
표현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어휘 사용과 문맥과의 조화 · 문법에 맞는 문장,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정확한 사용	20점

수상작 발표

2023. 9. 4.(월) 예정

· 교육혁신본부 누리집 게시 및 수상자 개별 연락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상장, 상금 30만원



우수상 2명
상장, 상금 20만원



장려상 3명
상장, 상금 10만원

기타사항

-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 투고를 제한합니다.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교육혁신본부에 귀속됩니다.
- 응모작은 글쓰기 윤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표절의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ChatGPT(챗GPT)로 작성할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수상작이 타 기관 등의 공모에서 당선되었거나 유사한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수상작은 수상작품집 및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교육혁신본부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교육혁신본부TV'에 게시하여 학내 구성원과 공유합니다.
- 수상작은 공익을 목적으로 편집 및 재가공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센터 ☎ 062-530-0916

수상작

최우수상	윤○인 유전자와 나	1
우수상	장○주 인간 사회의 진보 뒤에 남은 생물다양성의 몰락	4
	정○담 한국인 정○담은 오늘을 살아가기로 했다	7
장려상	이○연 아버지의 해방, 그 후	10
	임○후 사랑, 과학의 발전 속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가치	13
	최○지 언제나 옳을 수 없는 정치, 이상하지 아니한가	15



※ 수상작 접수 번호 순 정리

수상	최우수상(총장상)
도서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와 나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윤○인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많은 것들에 지나친 의미부여를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가 내용을 정리하며 가장 처음 했던 생각이었다.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다.”라는 문장은 인간은 항상 주체적으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존재라 배웠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깨부셨다.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 조종되는 존재일 뿐이라고 단정지어져버린 것이다. 우리는 진정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생존기계에 불과한 것인가? 나의 생각이고 의지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유전자에 의해 조종된 행동이었던 것이었나? 이러한 의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대부분의 독자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 책을 읽다보니 이런 의문점들이 차츰 풀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명백히 도킨스의 의도를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었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다. 바로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지금까지 인간이 정립해온 철학적 의문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체의 근본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이다.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자 가장 근본적인 단위는 자기 복제자다.”¹⁾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도킨스는 생명체를 이루는 단위를 유전자로 칭한다. 이 유전자는 끊임없는 자기복제를 통해 많은 변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재주있고 뛰어난 유전자들만이 살아남아 후대에 전해진다. 이러한 유전자의 전달 방식이 무엇일까? 바로 생명체의 번식이다. 그리고 이 책은 번식의 주체인 생명체를 유전자의 전파를 위한 생존 기계라고 부른다.

이 생존기계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 최대한 많은 번식을 위해 전략을 세운다. 수컷은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화려한 깃털이나 풍성한 갈기를 내세운다. 인간의 경우엔 예쁘게 자리잡힌 근육 혹은 수려한 외모가 될 수 있다. 여성 또한 여성성을 강조하여 겉모습을 치장하고 향수를 뿌린다. 이 모든 것들이 유전자의 생존 욕구이고 그에 따른 생존 계획이라는

1) 이기적 유전자(2018), 리처드 도킨스, 479p

게 놀라울 따름이다. 모든 생물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짝을 찾고, 번식 활동을 이어간다. 여기 까지 이해했을 때 우리의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하며 했던 모든 활동이 사실은 유전자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행위였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의미는 오직 '생존'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해진다. 어찌됐든 그 행위가 자의든, 타의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최정에 유전자 들을 전달받고 태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은 우리 이전의 조상님들을 만들었던 유전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번식에 성공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존기계'는 우리가 유전자의 조종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조금은 잔인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도킨슨이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먼저 유전자의 이해관계와 개체의 이해관계가 엄연히 다른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유전자의 목적은 단 하나다.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그 특성이 개체의 행복을 깨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라도 개의치 않는다. 가장 큰 고통의 원인 중 하나인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직도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며 우울증 따위에 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는 이로울 게 없는 감정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생존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이 위험을 피하기에 효과적이었기에, 그리고 그것이 개체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었기에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오고 있다. 그렇다. 유전자는 지극히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유전자의 정보를 형상화한 생존기계임에 불과하다는 해석은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너무 좁게만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따로 분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성에 의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이다.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욕구가 아닌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수동적인 생존기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인가? 나는 '희생'이 떠오른다. 부모님은 당신들의 청춘을 바쳐 나를 키워내셨다. 언제나 맛있는 것은 자식들의 입에 넣어주고,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하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의 마음도 유전자가 조종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는 번식력이 떨어진 늙은 개체보다 번식력이 높은 어린 개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한 마음을 오직 생존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유전자가 놓친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사랑'이다. 인간은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자식을 사랑으로 감싸며, 부모를 사랑으로 모신다. 그리고 인간은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유전자의 이해관계로 보자면 행복은 생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오직 우리의 의지로 행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전

자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유전자의 지시를 어기고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동물이다. 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며, 인간은 그것이 비록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실천해왔다.

분명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생존에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고, 감정소모를 하는 우리의 행위가 비효율적으로 보일 것이다. 인간 또한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생존만 바라보는 유전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후대에 전달하는 것은 유전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랑, 우정, 애정과 같은 미묘하고도 신비로운 감정들과 거기에서 생겨난 다양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 나온 ‘생존 기계’라는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몰입하여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는 유전자 자체로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와 별개로 행복, 명예, 평화 등 다른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의미있는 존재이다. 유전자가 우리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듯이 우리도 유전자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비혼주의 혹은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행복을 바라보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유전자가 아닌 우리이다.

〈이기적 유전자〉는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은 ‘나는 왜 사는가?’가 보다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준 것 같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 진정한 ‘나’를 고민할 수 있다. 유전자가 결정지어준 나의 본능을 알고, 내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진정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에 대한 질문이고 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전자의 조종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입체적인 존재라는 것. 나는 이 깨달음을 토대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보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수동적인 생존 기계가 아닌 능동적인 삶의 주인이니 말이다.

수상	우수상
도서	클라이브 폰팅, <녹색 세계사>

인간 사회의 진보 뒤에 남은 생물다양성의 몰락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장○주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수의 조류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여행 비둘기는 인간에 의해 지구에서 사라졌다. 인간이라는 덮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늘어갔다. 인간들은 이익을 위한 경쟁과 탐욕으로 녹색 세계의 경고를 무시해왔고 영겁의 시간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진 환경의 규칙과 질서가 무너져 갔다.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기에 자연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과 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환경의 몰락으로 이끌었다. 한정된 자원의 사용에 대한 갈등이 커졌고, 막대한 양의 다양한 폐자원으로 인한 오염은 환경의 정화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생물 자원의 착취와 증가하는 멸종 속도로 인해 생태 피라미드는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인류 역사는 환경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며 진보해나갔다.

한때 번성했던 사회의 이스터섬이 있었다. 지속된 산림파괴로 인한 이 섬의 절망적인 운명은 인간 사회가 제한된 환경 자원에 의존한다는 함의를 갖는다.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고갈은 인류 사회와 문화 질서의 파괴를 야기했다. 인간 사회, 문화를 위한 산림파괴와 자원의 과도한 이용이 결국 그 문명을 무너뜨리게 된 이야기다. 다른 생물의 희생으로 지속된 인간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했다고 할 수 없다. 정교한 문화가, 그 기록이 이어지길 바란다면 자연이 그 역사를 공유하길 원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우울한 이야기이지만 자연은 사람의 흔적이 남지 않을 때 풍요로워지고, 알록달록해진다.

인간 사회는 복잡하게 상호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일련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생물들이 이용할 에너지를 제공하는 식물이 있고,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인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있다. 그리고 식물의 수분을 돕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 멸종은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든다. 인간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들어 낸 오염을 정화하는 식물의 역할도 대신하지 못한다. 여러 빛깔의 꽃을 피울 수 없고 나비나 벌, 새와 같이 꽃가루받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생태계를 차지하는 생물들의 지위를 대신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다양한 생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

만이다.

인간은 정착 생활을 하며 채집, 수렵 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발전했다. 농업은 인간이 원하는 작물과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수단이었고 자연 생태계의 인위적인 변화의 시작이었다. 집약농업, 단일 작물 재배, 동물의 육종 개량과 선택적 교배를 통해 생산량이 증대되었고, 윤작의 방식이 복잡해졌다. 인간들이 만든 농업의 방식은 유전적으로 단순해졌고 농업 생태계는 질병과 해충에 취약해져 갔다. 인구밀도가 높아지며 확대된 농경으로 인해 동물과 공유하는 전염병이 증가했다. 자유로운 지역의 교류로 새로운 종이 도입되었고 생태계가 동질화되어갔다. 외래종이 유입되어 토종 생태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복잡했던 생물들의 상호연관성이 끊어져 갔다. 인간의 개입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인간의 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변명해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인간에게 있어 야생생물은 그저 이용해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야생생물의 이용에 소유권은 없었고 이용 비용이 저렴했기에 생물의 이용에 있어 제약이 없었던 것이다. 고전학파와 경제학은 지구의 자원이 희소하지만 유한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자원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뤄진다는 비논리적 가정을 해왔다. 자유시장에서 자본주의의 압력은 인간이 환경적 제약과 미래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었다. 대량 소비사회가 대두했고, 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한 과도한 생물 자원의 이용, 벌목, 화석 연료의 사용, 광물과 금속의 생산 등 환경 자원의 과도한 소비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인간이 생태계의 자원을 독점해 나갔다. 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자연 훼손의 문제도 심각해졌지만 인간의 관심사는 오로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분배할 것인가였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욕망이 되어 자원의 희소성을 높였다. 아무리 많은 자원을 취해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어떤 생물을 인위적으로 자랄 수 있게 만들었고, 나중에 쓸모 없어져 버린 생물은 마법 같은 분자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지만, 사람들은 자연의 지배가 자연스러웠다.

자원의 감소와 더불어 폐기물의 양도 증가했는데, 산업화로 만들어진 폐기물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어려웠다. 자원의 고갈 뒤에는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 중금속, 농약과 합성 세제, 의료 폐기물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남았고 그에 대한 처리가 복잡해졌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은 해양과 토양, 대기 환경에 잔류하게 되었고 생태계를 순환하며 먹이 사슬을 따라 생물체 내에 축적되었다. 농업 의존성 증가에 따른 농약의 광범위한 사용은 조류의 개체군 감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유기염소계 농약은 조류의 알껍질을 연하게 만들어 조류의 번식 생태에 문제가 되었다. 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 조류의 정상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했다. 원래는 이 땅의 주인이었을,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하늘을 수놓던 새들의 터전은 다양한 농약으로 오염되어 갔다. 인간은 풍요로워졌고, 생태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오염은 생태계 구성원을 병들게 했다.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과 다양한 화학

물질 속에서 대부분의 생명은 적응할 수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발전 속도는 이기적이었다.

인간은 그들이 속한 생태계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자원의 유한함을 인지했어야 했다. 인간 중심적 사상을 벗어나 자원이 갖는 가치를 알았어야 했다. 과도한 인위적 생태계 변화를 경계했어야 했다. 자원을 착취하며 얻는 경제적 기반의 이득과 그에 따른 생태계의 생물들을 위한 균형을 맞췄어야 했다. 희소한 자원에 대한 경쟁이 아닌 보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면 오늘날 인간이 생태계 내에서 조금 더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물 종의 멸종 속도가 과거보다 1000배 이상 빨라졌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량으로 인해 환경문제의 지식이 정교화되고 있다. 자원에 대한 소비와 이용, 그리고 폐자원의 처리까지 산업 기반 시설의 검토와 감시가 필수 불가결해졌다.

생태계의 인위적인 변화는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나의 번창했던 생물 종이 멸종에 이르기까지 풍족한 자원도 희소한 자원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만들어 낸 결과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식량을 원했고, 예쁜 깃털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늘빛이 도는 회색 등과 보라색의 가슴을 가진, 이름처럼 여행하며 하늘을 빼곡히 메웠던 여행비둘기는 1914년 멸종했다. 그들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그래서 인간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행비둘기는 뉴욕과 멕시코 여행을 여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인간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모든 생물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몇 남지 않은 생물들에게 또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진보의 길을 걸어왔다. 혁명 뒤에 남은 흔적들은 인간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괜찮은 혁신을 이루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생태계의 일부인 동시에 다른 어떠한 생물도 대체할 수 없기에 생태계의 균열을 막아야 하고, 생물다양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간의 마지막은 파괴적인 침입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수상	우수상
도서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한국인 정○담은 오늘을 살아가기로 했다

공과대학 건축학부 정○담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돌아간 이후를 걱정하고, 방학 중에도 개강 이후를 걱정한다. 이 정도면 방학을 보내고 있는 나의 삶을 잘 표현했을까? 이렇게 걱정 속에서 녹아버린 방학이 벌써 수십 번이고, 몇 남지 않은 방학만이 내 많고 많은 걱정을 달랠 뿐이라 할 수 있다. 재밌게 놀았나 싶어도 누가 유럽 여행을 멋지게 갔다고 하면 가슴 가장자리가 따끔거리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더라도 누군가의 오마카세 사진을 보면 입안의 내용물을 질경거리게 되지 않나. 이러한 일상들은 내 방학으로 담기 부족해 인생에 먹물을 뿌려대니 가히 오지 않는 밝은 내일을 살아가고 있나 싶기도 하다.

이제 이 재미없는 인생일지, 서론일지 모를 글을 다 읽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이야기 나랑 좀 비슷한데?"라는 생각이라면 나와 함께 오늘 재미없는 책 한 권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니콜라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이다. 이 책은 화자가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서 만난 그리스인 조르바와 함께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에피소드로 풀어낸 소설이다. 단순히 소설로 이 책을 읽자면 단순하게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조르바의 일상엔 드라마나 영화처럼 흥미로우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지 않다. 그는 특별한 부분이 없는 무식한 뺏사람이다. 이 책을 처음 읽으면 도대체 이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쓴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특별한 교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아니다. 이런 것 들을 제한하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그거 재미있는 소설 맞아?". 그렇기에 나는 소설이 아닌 옆집 아저씨 조르바의 일기장을 훑쳐본다는 생각으로 한 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조르바를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작가인 카잔차키스와 조르바 이 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필요할지 모른다. 작가인 카잔차키스는 19세기 말에 태어난 그리스인이고,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세계 2차대전 이후 베를린에서 이 소설을 집필하였다. 작중에 나오는 조르바는 배경으로 있는 실존인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그리스 독립 이후 터키, 불가리아 등과 전쟁을 치른 혼란의 시대 속에 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아이러니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시 많은 이념들이 넘쳐흐르던 세상에 살던 작가와 조르바가 무신론적이며 무이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삶을 살고자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민족주의, 종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민주주의까지 정말 많은 이념들이 서로의 맞고 틀림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같은 이념을 공유한다면 친구로 있을 수 있지만, 다르다면 죽어야 사라지는 적이었다. 이런 외눈박이들이 있는 마을에서 두 눈을 뜬 조르바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였다.

작 중 조르바는 보스에게 “나 당신 머리털이 쭈뼛 설 만한 짓들을 내 조국을 위해 서슴지 않고 했소. 왜 그랬을까? 그들이 불가리아인, 터키인이었기 때문이었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젊은 시절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겁탈하며, 마을을 불태우는 등의 여러 행적을 고백한다. 그 후 다음 문단에는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가 불가리아인인지 그리스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젊은 시절 자신을 돼지 자식이라고 칭하며 이념에 취해 행했던 행동을 크게 후회한다.

나는 이 두문장이 조르바의 삶을 관통하고 있으며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념과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21세기라도 다르지 않다. 인종, 종교, 지역, 민족, 성별 등으로 인한 갈등은 현재에도 진행중이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작가 카잔차키스는 이 소설을 전후 베를린에서 집필하였는데, 이념 충돌의 가장 큰 현장을 즉시 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이념에 취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행동들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형이상학적인 가치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존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소설에 녹여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조르바는 누구보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 화자인 보스에게 책이나 저울과 같은 것들을 저리 치워버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 않는다. “카르페디엠”이라고 하던가, 오늘만을 살아가는 인생을 보내는 것이다. 작 중 조르바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한다.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하는가?’, ‘일하고 있네.’, ‘잘해보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하는가?’, ‘키스하고 있네.’, ‘세상 일 모두 잊어버리고 그 여자에게 집중하게.’

이처럼 조르바는 머릿속으로 복잡하고 재고, 계산하지 않으며 단순하게 현재에 집중해 살아간다. 이러한 태도는 내게 불교의 구도자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었다. 빗자루 질을 하고 계시는 스님께 진리를 물어본다면 “빗자루질이요.”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던가. 사실 난 불교

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에 이 비유가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에 대해서는 느껴볼 수 있었다. 누군가는 이러한 생각들을 단순하고 멍청한 생각이라며 폄하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여기서 누가 맞고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조르바처럼 살 수 없고, 그 반대로 살 수도 없으니까. 다만 이 안티 조르바와 같은 나의 경우에는 책을 다 읽을 때쯤 조르바로부터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

간이 맞지 않는 요리에 향신료를 뿌리듯 우리 모두에게는 조르바 한 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아는 것은 분명 큰 힘이라고 하지만, 요즘 나는 무언가를 알아갈 때마다 조금씩 지쳐가는 기분이 든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르는 기분이 들고, 그렇기에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도 모른다. 주식에 대해서 알게 되자 경제 뉴스를 보며 걱정하고, 운동을 시작한 이후 체중계를 보며 신경을 쓴다. 어렸을 적에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멍청한 사람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른 생각도 든다. 개구리는 적어도 우물 안에서 행복했을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한 줌의 하늘을 음미하며 현재를 살았을지도 모르지.

넓은 하늘을 보게 된 개구리가 된 나는 걱정은 점차 늘어만 가고 생각은 많아지기 일쑤이다. 여기에 옆집 개구리 시선까지 신경 쓰면 당장 내 눈앞에 하늘이 아닌 땅바닥조차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지만, 현재를 즐기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 글을 쓰는 나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고작 글 몇 자에 인생을 뒤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터닝포인트가 되어 준다면 좋겠지만, 그건 무리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새롭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디 조미료 좀 친다고 국밥이 파스타가 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매일 같이 걱정해 표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 번은 떠올리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스에서 온 향신료 한 줌을, 누구보다 현재를 즐기던 단순 무식한 뱃사람도 세상 잘 살다 갔다는 것을 말이다.

수상	장려상
도서	정지아, 〈아버지의 해방일지〉

아버지의 해방, 그 후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고고학과 이○연

“자네, 지리산서 멋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가? 민중을 위해서 아니었는가? 저이가 바로 자네가 목숨 걸고 지킬라 했던 민중이여, 민중!”

빨치산 출신 아버지는 자나 깨나 ‘민중’ 생각뿐이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전직 빨치산 아버지 고상욱의 3일간의 장례식을 딸 아리의 시점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아버지의 고향이자 주 무대였던 구례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함께 투쟁했던 동료들, 사상이 달랐던 친구, 도움을 받았던 사람 등 다양한 조문객들이 방문한다.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리는 빨치산 아버지의 딸로서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소설 속 아버지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매력적인 인물이다. 아리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울곧은 혁명가다. 가족에게 긴요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빨치산 시절 이야기 말고는 잘 하지 않았으며, 젊은 사람들이 민족의 통일을 주요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곤 했다. 또한 자신은 유물론자라며 묘를 쓰지 말고 유골을 아무 데나 뿌려버리라고 했다. 이처럼 아버지는 개인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과 대의를 우선하는 인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아버지의 전부는 아니다. 아리는 장례식을 치르며 아버지의 새로운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남는 방이 없어도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재워주고, 당장 돈이 없어도 남에게 보증을 서 주고 다니다가 빚을 떠안았으며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삼만 원 이상의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 보증 서 줬던 사람이 아반도주해도, 사람들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인간을 신뢰하고 사랑했다. 또한 완벽한 혁명가처럼 보이는 아버지도 사실은 실수투성이였다. 여자를 밝히기도 하고 책에만 의존하느라 매번 농사를 망치기도 했으며 딸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특히면 민중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지만 사상과 사람은 별개라며 우파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고상욱은 사회주의 혁명가이기 이전에 이웃, 남편, 친구, 연인, 그리고 아버지였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희망적인 이야기만 담겨 있지 않다. 사회주의 사상을 선택한 아버지와 주변 인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도 조명한다. 아버지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어머니는 여자도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회주의자가 되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참혹했다. 아버지가 빨치산으로 활동한 기간은 고작 4년이었지만, 이십 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견뎌야 했고 전기고문의 후유증으로 사시와 불임을 얻었다. 출소 후에도 평생 이사를 할 때마다 신고해야 했으며 항상 담당 형사가 따라다녔다. 고통은 아버지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를 찾아다니던 군인들에 의해 할아버지가 살해당했고, 당시 아주 어렸던 작은 아버지는 자신의 말 때문에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알코올중독자로 살아간다. 지리산에 파견된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친구 박 선생은 형과 누나가 지리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총알이 가족을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고통스러워한다. 또한 연좌제도 이들 가족을 괴롭혔다. 큰집 길수 오빠는 육사에 합격했지만 입학하지 못했고, 아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한다. 소설이지만 이러한 고통의 대물림은 당시 ‘빨갱이’로 몰렸던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사례들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상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사상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과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평생 낙인찍어 고통받게 하고 온 가족에게까지 죄를 묻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소설이 끝나고 아버지는 죽음으로서 비로소 해방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숙제를 남겼다. 무고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잔인하게 학살했던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4·3 당시 제주도 전체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었다고 낙인찍고 아이들마저도 세뇌된 공산주의자라며 무참하게 학살했다. 소련 배후설이나 북한 지원설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²⁾ 최근에서야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희생자들은 낙인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숨어지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소설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한 여순사건을 규명하는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에 제정되었으며 이미 수많은 희생자가 사망한 뒤였다. 유족들은 지원금보다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한 국가의 진정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한다.³⁾

이와 같은 낙인찍기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4·3, 여순 사건 후에도 ‘빨갱이’라는 낙인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구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즉결처분 명령이었다.⁴⁾ 이념에 따라 사람을 적으로 몰거나 이념하고 관련 없이 그저 탄압하기 위해 썼던 ‘빨갱이’라는 용어가 현재도 일종의 혐오 표현으로 흔히 쓰이고 있다. 아픈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묻어두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상이다.

아버지는 모두가 평등하고 가난한 자도 인간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두루

2) 광병찬, 「대한민국의 제주, ‘빨갱이 낙인」, 한겨레, 2017.4.5.

3) 안관옥, 「‘빨갱이 낙인’ 숨죽인 73년…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첫발」, 한겨레, 2021.6.29.

4) 광병찬, 위의 기사.

읽힌다는 사실이 사회가 그렇게 경직되지 않았다는 방증인 것 같다고 말했다.⁵⁾ 세상은 아버지가 살던 세상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 더 이상 다른 사상을 가졌다고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평등보다는 경쟁을 부추긴다. 돈이 사람보다 먼저일 때도 있고 온갖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었던 세상을 기억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탄압하던 아픈 과거를 기억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디딜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해방 그 후, 이제는 우리의 해방을 시작할 차례이다.

5) 임지영, 「〈아버지의 해방일지〉, 빨치산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시사인, 2022.11.23.

수상	장려상
도서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사랑, 과학의 발전 속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가치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임○후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맞이하는 방학을 알차게 보내겠다는 다짐도 잠시뿐, 하루하루 각종 SNS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버린게 벌써 한달이다. 겨우 하는 알바와 운동을 위안삼아 무의미하게 흘러보낸 시간을 합리화하는것에도 싫증이 나버렸을 무렵, 우연히 독서에세이 공모전 홍보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마침 추천도서 목록에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발견했고 전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던 책이라 바로 참여를 결심했다. ‘과학을 전공한 젊은 문학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김초엽 작가의 글이 궁금하기도 했고 어쩌면 입학하기 전부터 해왔던 고민인 내 진로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보통 SF소설이라고 하면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 차가운 미래가 생각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들었던 느낌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총 7개의 단편소설이 엮인 형태인데, 모두 다른 미래를 그려내고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결론은 각기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 다른 행성 생명체와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 소외된 존재를 향한 사랑. 이게 내가 책에서 발견한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에서 순례자들은 사랑을 위해 안락한 마을이 아는 위험한 지구를 택하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서 노인은 가족들이 있는 행성으로 가고자 몇 번이나 자신의 몸을 냉동시키면서 기약없는 기다림을 계속한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는 걸까? 나는 책에서 나타난 다양한 관계과 사랑, 그로 인한 인물들의 결심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사람은 기술이나 과학, 공학보다는 사랑과 관계 덕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흥흥한 소식들, 호의에 담긴 선한 마음마저 의심받아야 하는 각박한 현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사랑’일지도 모른다. 이성간의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올리브처럼 ‘그 사람과 함께 세계에 맞서는 일’과 같이 거창하게 서술될 수도 있지만, [스펙트럼]의 희진처럼 ‘잘 자라는 인사’와 같이 사소한 관심 또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다.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벅찬 사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사랑을 잊어서는 안된다. 치열하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외된 존재를 돌봐야 한다.

7개의 이야기 중 가장 인상깊었던 이야기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였다. 과학자 릴리 다우드나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연구했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그 기술은 세상을 ‘개조인’과 ‘비개조인’으로 나누는 발판이 되었고 사회의 경계를 철저히 나누는 요인이 된다. 차별에 맞서기 위해 했던 연구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신체적 결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결함이 아닌 개성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마을을 탄생시킨다. 마을의 구성원은 모두 일정 나이가 되면 순례자가 되어 마을을 떠나 지구로 가는데, 그곳에서 지구의 사람들과 사랑에 빠진 순례자들은 안락한 마을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차별과 고통으로 가득찬 지구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세계가 고통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차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나는 과학의 발전에서 소외된 이들의 고통과 이를 넘어서는 사랑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과학은 지금도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그 성과는 몇백년, 몇십년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하지만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있을까? 어떤 기술은 그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지만 기술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게는 오히려 사회의 경계를 뚜렷하게 하는 구분선이 될 수 있다. 책에서도 부유층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빈곤층은 그럴만한 돈이 없어 사회에서 멸시받고 ‘비개조인’이라는 이름으로 도심 밖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

책 속의 이야기는 먼 미래가 아닐지도 모른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와 누리지 못하는 이의 경계가 생길 것이고, 그 둘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일 가능성이 높다. 생물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과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과학이 윤리적인 연구 토대 위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채 발전한다면, 인류에게 펼쳐질 미래는 눈부신 유토피아가 아닌 어두운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세상을 바꾸려 희생하는 책 속의 순례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경쟁으로 가득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잊은채 살아가고 있는게 아닐까.

수상	장려상
도서	조지 오웰, <동물농장>

언제나 옳을 수 없는 정치, 이상하지 아니한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최○지

‘오로지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대목, 우리는 참으로 익숙하다. 아주 어릴 적 학급 반장을 뽑을 때부터 대학의 임원단을 구성할 때는 물론, 한 나라의 원수에 투표권을 행사할 때 역시 익히 들어 귀에 맴돌 것이다. 부모도 아닌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완전무결한 지지와 사랑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에 말은 배로 감동적이다. 물론 그것이 순도 백 퍼센트 진심에서 우러나왔을 때 한정하여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럴 수 없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 역시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다만 필자는 그 사람의 속내를 완벽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제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되, 이외의 것을 적어도 나름의 눈치로써 행할 뿐이라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적어도’와 같은 예의조차 없이 말로써만 행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법이 없는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동물농장』은 그러한 섬뜩함을 바로 마주할 수 있게 훑아보는 아주 유의미한 책이다. 작품은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폭정을 우화로 포장하여 독재 정권을 맹렬하게 비판한다. 글의 배경이 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지나친 소련은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백성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존중하지 않던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퇴위와 동시에 임시정부가 생겨났지만, 기관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레닌 주도 하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소련의 땅에 사회주의가 자리 잡고 레닌이 죽음을 맞이할 적엔, 그의 수하로 있던 스탈린과 트로츠키 중 스탈린이 승기를 들었고, 이윽고 국가는 숙청과 학살이 난무한 정치적 암흑기에 들어서고 말았다. 작가 조지 오웰은 이러한 역사를 축약해 소설에 담았다. 『동물농장』은 정원농장의 농장주 인간 ‘존스’의 악덕한 운영에 반발하여 시작된 동물들만의 경영 속, 모든 동물의 평등을 지키자는 초기의 목표와는 다르게 권력층과 피권력층이 나뉘게 된다. 글을 읽을 줄도, 외우기도 버거운 짐승들은 우두머리에 위치한 이들이 짜놓은 각본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이유 모를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권력층이 부패해지는 꼴을 두 눈으로 목격해도, 그들은 그저 만족하며 살아간다. 그것 외에는 도무지 할 줄 아는 게 없다.

글을 읽다 무력함에 대해 골몰히 생각해 본다. 하고 싶음에도 능력이 부족하여 좌절되는 것만이 무력은 아니다. 알 수 있음에도 알려 하지 않고, 되려 회피를 택하는 것 역시 무력의 일종이다. 이러한 류의 무책임함은 정치 분야, 특히 젊은 세대 안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필자 주변의 친구들은 대개 정치를 논할 때면 머리 아픈 일은 사양한다며 쉽게 피로해 하고 금방 입을 다문다. 어른들이 뽐으라 하니 뽐았지만, 당최 누가 누군지,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 과정과 결과가 어찌 되었든 일단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고 되려 따져 묻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동물농장』 속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를 반복하는 짐승들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다.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자면, 투표는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분명히 기여하지만 그것만으로 건강한 사회를 일구어 나가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제아무리 최선의 후보를 선별하여 투표하였다라도 그가 재임 동안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는 마땅한 지적이 필요하고, 그것은 여론을 만들거나 시위를 벌이는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설령 이것이 결과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닌 것에 대한 반발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에 있어 더욱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주류 내지는 권력층의 힘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한다.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 의식과 어차피 나보다 똑똑한 이들이니 어떻게든 해내지 않겠냐는 굴욕적 낙관주의가 심히 자연스레 만연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리 무르지 않다는 것이다. 집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데에 비해 전세 사기는 날마다 속출한다. 물가는 도무지 잡힐 생각일랑 없는데 최저 임금은 만 원을 넘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이 하나 키우기도 빠듯하여 출산율은 저하되고, 노령화지수는 수직 상승한다. 여성과 남성은 어느 성별이 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두고 앞다투어 싸우고, 4050세대와 MZ세대는 좀처럼 의견을 좁힐 줄 모르고 서로를 고까워한다. 어느덧 젊은이들은 땅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어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혀를 찬다. 이렇듯 언제 폭풍이 불어 닥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나날인데, 기득권의 하루는 놀라우리만큼 평화롭다. 그들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 버린 땅들을 세단으로 매끄럽게 지나쳐서는 깔끔한 차림새로 단상 앞에서 나타나 부드럽게 말을 이을 것이다. ‘오로지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아니한가. 이제는 더 이상 각자의 안위를 권위와 체계 아래 맡기는 것이 아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학년도 전대애편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일 : 2023년 9월 12일

발행인 : 양영희

편집인 : 정다운

발행처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센터

주소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 062-530-0916

누리집 : <http://ile.jnu.ac.kr>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2023.